

# 國民과 함께하는 原子力發電

## ◇韓國電力公社◇

原子力發電所를建設, 運營하고 있는 韓電으로서는 지난 어느 때와는 달리 今年에는 原子力發電의 時代的 使命感을 더욱 깊게 인식하고 責任있는 發電所建設 및 運營에 임해야 할 時點인 것으로 생각한다.

今年에 原子力發電所建設 및 運營에 있어서 主要 推進 懸案으로는 積極的인 弘報活動으로 原電에 대한 汎國民의 理解와 同參誘導, 原電周邊 地域協力 強化, 靈光 3, 4號機의 圓滑한 建設進行과 蔚珍 2號機의 商業運轉開始, 그리고 既存 運轉中인 發電所의 信賴性있는 設備運營이 될 것이다.

첫째, 積極的인 弘報活動으로 原電에 대한 汎國民의 理解와 同參誘導이다.

美國 TMI原電과 蘇聯 체르노빌原電事故로活性화되기 시작한 反原電活動이 國內에서는 政治狀況 變化로 인한 民主化活動에 便乘되어 加熱되기 始作하였고, 급기야 昨年 12月에는 原電周邊住民들에 의한 集團的 示威行爲로展開되었다.

反原電 및 地域住民들이 主張한 原子力安全에 관련된 事項중에는 原子力에 대한 理解不足과 막연한 두려움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韓電의 對國民弘報가 未洽하지 않았나 하는 自省의 契機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今年에는 各樣各色의 主張을 効率的, 多角的으로 수렴하고 弘報對象의 程度에 맞는 弘報方案을 摸

索하는데 注力하겠다.

그리고 韓電만의 努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部分에 대해서는 관련 政府機關, 電力그룹사, 原子力產業 關係社들과 共同協力하여 對處해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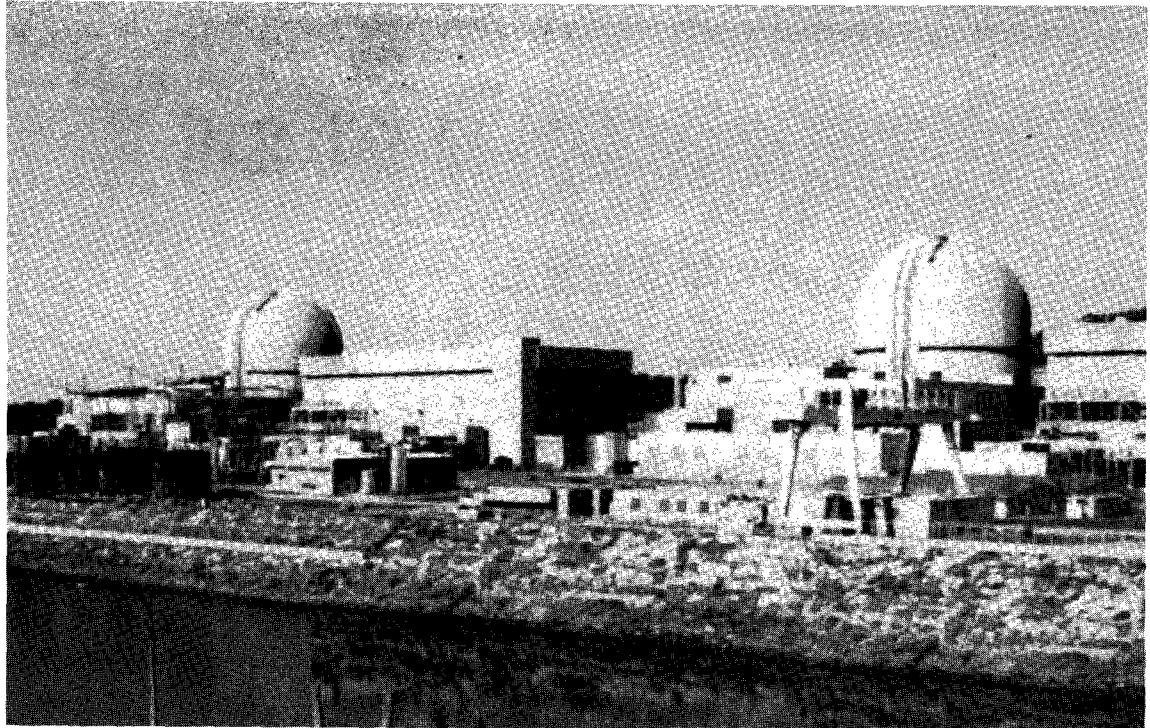
둘째, 原電周邊地域에 대한 地域協力 強化이다.

原電周邊住民들은 原子力發電所로 인해 生活에 미치는 影響 등에 關心을 集中하고 있다. 現在의 窮乏된 生活與件을 原子力發電所 탓으로 돌리고, 이에 대해 補償받으려는 欲求가 集團行動으로 까지 표출된 바도 있다.

그러나 韓電은 地域住民에 대한 理解와 寬容으로서 理性的 對話의 창구를 항상 開放해 놓고 있으며, 顧客指向的 奉仕姿勢로 地域住民의 隘路點을 積極的이고 能動的으로 解決해 주고 있다. 또 地域住民들의 合理的이고 合法的인 建議事項에 대해서는 성심껏 受容하고 우선적으로 處理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地域住民에 대한 奉仕와 紐帶關係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이에 地域住民들도 原子力發電所에 대한 否定的 視角보다는 原子力發電所로 인한 安全上問題點이 啓음을 肯定하고 原電과 共存하며 相扶相助한다면 原電周邊이 다른 어떠한 곳보다 오히려 더욱 살기좋은 地域으로 發展할 수 있음을 認識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또한 韓電은 地域協力を 위한 効率的 財政的支援을 위하여 費用調達의 法制化를 推進하고



▲영광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있으므로, 今年은 原電周邊地域開發과發展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地域住民들도 討議를 통해 合議된宿願事業에 대해 우선順位를 정하고, 韓電과의 公式的對話경로로意思傳達되어야 地域協力의 効果가 極大化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째, 靈光3, 4號機의圓滑한建設進行과蔚珍2號機의商業運轉開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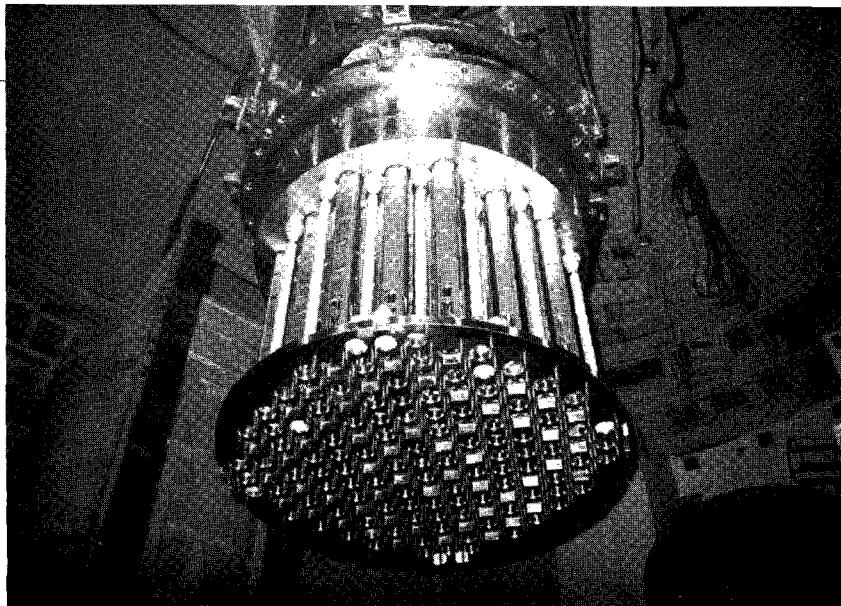
靈光3, 4號機의原子爐安全性에 대한否定的視角이 있는關係로建設進行上에反對活動이 우려되나, 靈光3, 4號機는'90年代中半의安定的電力需給을 감당하게 될 주요電力設備이므로住民들과의協同으로順調롭게進行되어야 하겠다.

現在韓電은電源立地의確保라든가,環境保存問題等電源開發에 수반되어 解決해야 될問題點을 안고 있어火力發電所의境遇建設推進上에蹉跌을 빚고 있어 심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靈光3, 4號機는 어느發電所보다도 더安全하게建設하자는 다짐이韓電人 마음에굳게충전되어 있으므로靈光原子力3, 4號機는地域住民의理解속에地域住民과 함께지어지는發電所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韓電은靈光3, 4號機建設推進을蹉跌없이수행함으로써外國에의존해오던尖端技術을傳受받아原子力技術을90%以上自立하여,後續原子力發電所建設時外國機資材및技術導入에所要될外貨流出分을抑制하고國家的目標인에너지自立에확고한基盤을마련하고자하고있다.

한편,蔚珍2號機는今年9月頃商業運轉을目標로建設마감作業,試運轉試驗,性能試驗등 일련의 중요作業이遂行될豫定이다.蔚珍2號機가준공되면國內運轉中인原子力發電所基數는9기가되고設備容量은761만6천kW로增加하게된다.이로서蔚珍原子力發電所는2기를運轉하는事業所가되며,昨年에준공한



蔚珍 1號機와 함께 금년 9月에 公式的인 竣工式이 舉行될 예정이다.

네째, 運轉中 發電所의 信賴性있는 設備運營이다.

國內 原子力發電所의 設備利用率은 '84年 以後 계속 70% 以上을 維持하여 왔으며, 世界 平均 利用率을 상회해 왔다.

또한 '88年度에는 古里原子力 2號機가 327일 간 國內 最長期 無停止連續運轉을 記錄하였으며, 古里原子力 4號機도 304일간 한 週期 無停止連續運轉을 記錄하였다.

그러나 蔚珍 1號機의 發電機 故障은 原子力發電所 運轉에 아쉬움을 남긴 經驗이었다.

이러한 不幸한 經驗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原子力發電所의 單純한 故障停止도 原子力發電所 運營에 國民의 關心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國民들로 하여금 原子力에 대해 無意識的으로 두려움과 驚愕心을 갖게 해주며 反原子力의 名分을 提供해 준다는 事實을 체험하였다.

이에 새해에는 “發電停止 1件씩 줄이기” 運動을 더욱 活性化하여 發電設備 및 機器의 故障을 事前에 防止하고, 運轉員과 補修員에 대한 教育 強化 및 資質 向上으로 人的失手로 인한 發電停止도豫防하여 信賴받는 原電 運營을 이룩하고자 한다.

今年에는 原子力發電으로 인한 電力의 安定的 供給 뿐만 아니라 運轉에 隨伴되는 제반 業務도 보다 더 注意와 關心을 갖고 處理되어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原子力發電所에서 나가는 일반 쓰레기도 放射線 問題와 결부시켜 聯關지으려는 事例가 發生하여 原電 周邊住民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로 부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現在 原子力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理解는 原子力에 대한 大衆言論機關의 報道內容으로 부터 事實 確認없이 얻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言論報道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原子力關係者들의 協調가 要望된다.

今年에도 國內外의으로 原子力發電所 建設 및 運營上에 많은 어려움이 發生될 것으로 보이며, 特히 國內에서는 民主化 氣勢에 便乘한一部의 목소리가 反原子力 活動으로 噴出되고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豫測된다.

이에 韓電人을 비롯하여 原子力關係者들은 原子力의 安全性 및 必要性에 대한 確固한 信念을 갖고, 에너지自立을 위한 原子力의 役割을 再認識하고 精進하여야 하겠고, 이제부터의 原子力 建設 및 운영은 원자력관계자들 만의 專有物이 아니며 온 國民의 合意下에 運營된다는 事實에 有念하여 國民과 함께하는 原子力發電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